

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 金 泰 亨
編輯人: 金 泰 載
印刷人: 宋 載 勳

發 行 處
安東金氏大宗會

서울시東大門區龍興1洞112-49
電 話: 244 - 3717
對接計座: 010983-31-0513119
郵便番號: 130 - 091

一九九四年度 獎學金授與式舉行

大宗會에서는 94年度 獎學金 支給對象者를 各派會長으로부터 13名을 推薦받아 지난 8月 27日 會長團會議에서 嚴格히 審査하고 其中成績이 優秀한 學生 8名을 選定하여 9月 11日 午後 2時 大宗會會議室에서 學生과 保護者가 같이 參席



나는 오늘 우리
安東金氏 大宗會
에서 選拔한 獎學
金 支給對象者인
學生宗員과 그의
父母任에게 먼저

獎學金授與式에서 泰亨會長님의 獎學生 및 全國安東金氏 青少年들에게 보내는 激勵辭

讚揚의 人事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大宗會에서는 全國의 高等學校 2·3學年에 在學中인 宗員中에서 學業成績이 優秀하고品行이 바른 사람을 選拔하여 獎學金을 支給하고 우리 安東金氏 門中의 優秀한 人材로 기르고 싶고, 나아가 우리 國家民族을 爲하여 功獻할 수 있는 人物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獎學金制度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中始祖인 忠烈公(諱方慶) 할아버님의 後孫으로서 더욱 祖上님들을 빛내는 子孫이 되어야 하며, 이 獎學金도 後孫을 사랑하고 激勵하는 뜻에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것으로 그 뜻이 크고 거룩한 줄을 알고 앞으로 더욱 學業에 熱中하여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는 이 말은 비단 여기 모인 宗員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全國 青少年 宗員 모두에게 이르고 싶은 말입니다.

나는 生覺하기를 目標을 세우고 成功하려는 사람은 恒常自己 스스로 成功을 爲하여 策勵하고 實踐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러기 爲해서는 季節이 바뀔 때마다 그 機會로 삼아야 합니다.

옛날 學者들도 무더운 여름과 지루한 장마철에 공부할 못하고 歲月을 보내다가 서늘한 七夕이 되면 여름철에 공망이가 난 책을 햇볕에 말리고 공부할 準備을 하였는데, 책이 없는 가난한 學者는 책 대신 犢鼻褌(쇠코삼방)을 햇볕에 말리거나 또는 글이 들었다고 生覺하는 배(腹)를 햇볕에 쪼이고, 그때부터 공부에 熱中하는 契機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때는 新涼이 入郊하여 燈火可親之節입니다. 이런 季節을 어찌 놓칠수가요. 成功하는 사람이란 恒常남다른 決心과 그 決心을 實踐하는 姿勢가 必要합니다. 大學入試를 앞두고 寸陰을 아끼는 高等學校 學生들이 어떻게 하면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느냐는 것이 關鍵이라고 生覺할 때, 내가 공부하는 그 時間에는 누구나 다 같이 공부를 하지만 추석이나 설 명절처럼 남이 쉬 때 나는 공부를 한다면 그만큼 남을 앞서가는 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이 瞬間 나도 모르게 여러분과 競爭하는 學生 氣分으로 돌아가 向學心이 불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과 競爭할 수 있는 時期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公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리 後悔하여도 다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朱子勸學文에
勿謂今日不學而 有來日하며,
勿謂今年不學而 有來年하라.
日月逝矣나 歲不我延이니,
嗚呼老矣라 是誰之愆고.

※ 오늘 배우지 아니하고서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며,
올해에 배우지 아니하고서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날과 달은 흐르니

세월은 나를 위해서 더디 가지 않는다.
아! 이렇게 늙었도다.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고.

라는 글과 같이, 늙어서 공부할 時期를 놓친 것을 恨할들 무엇하리오.

또 공부하여 成功하는 일은 自己 힘으로 해야지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自己 힘으로 成功하는 事例로, 그 단단한 고치를 뚫고 나오는 나방의 敎訓을 말하여 드립니다. 고치 속에 들어 있는 번데기가 일정한 時期가 지나면 나방으로 變하여 그 가늘은 입으로 단단한 고치를 自己 힘으로 뚫고 나와서 알을 낳고 그 알이 애벌레가 되어 自己 힘으로 집(고치)을 짓는 昆蟲의 一生을 보고, 萬一 사람이 고치

에 구멍을 뚫어 주어 쉽게 나방이가 나오도록



▲ 격려사를 하시는 태형 대중회 회장님

록해 준다면 그 나방이는 나와서 알을 낳는 使命을 達成하지 못하고 죽어버릴 것입니다. 즉 저 가늘은 나방이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自己 힘으로 그 단단한 고치를 뚫고 나옴으로써 成功을 한 것입니다.

그 예쁜 병아리도 단단한 달걀 껍질을 自己 힘으로 콧속 쪼아서 世上 밖으로 일출을 내밀 때 비로소 成功의 快感을 느낄 것입니다. 이 달걀도 엄마닭이나 사람의 힘으로 껍질을 벗겨 주다면 병아리의 生命은 끝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自己 힘으로 노력하는 것은 비단 공부를 하여서 成功하는 일뿐 아니라, 모든 일의 成功은 무엇이나 自己 힘으로 하였을 때만이 金城鐵壁과 같은 단단한 成功이 이루어진다는 眞理를 굳게 굳게 간직하고, 여러분들은 目標을 向하여 一路邁進하는 끊임없는 努力을 繼續하여 成功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공부(學問)하여 成功하는 사람이 간직하여야 할 여러 가지 事例와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自己 힘으로 努力하여서 成功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끝으로 사람이 누구나 銘心하여야 할 敎訓을 일러 두고자 합니다. 靑山 속의 山谷間에서 솟는 맑은 물을 소(牛)가 마시면, 사람에게 有益한 牛乳가 줄줄 나오지만, 萬一 이 물을 毒蛇가 마시게 되면 毒이 되어 사람을 물어서 害毒을 끼치게 됩니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셨을 때와 毒蛇가 마셨을 때가 다르듯이 學問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그 사람이 父母에게 孝道하며 착하고 바르게 사는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공부를 하였을 때 그 공부가 빛나는 것이지 사람의 바탕이 제대로 안 되고 品性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잘 한들 家庭이나 社會가 바라는 좋은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將來가 萬里같은 學生 宗員 여러분에게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時間關係로 다 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激勵辭를 줄입니다.

이 激勵辭는 全國에 散在하는 우리 安東金氏 青少年 宗員이 學生이나 아니나 빠짐없이 읽어 주기를 바랍니다.

一九九四年 九月 十一日

安東金氏 大宗會
會長·辯護士 金 泰 亨

上者鮮矣
『論語』學而篇

다시 二일이 지난 후
十二월 六일에는 충렬
왕(忠烈王)을 중서좌
승상(中書左丞相)으로
삼을 것을 발표하였고
다시 七일에는 충렬왕
(忠烈王)은 정일본군
관천패호부(征日本軍
官天佩虎符)를 수여

람이 휴대(携帶)하고 돌아온 조서(詔書)를 맞이하기 위하여 왕(王)은 백관(百官)은 인솔하고 서문성(西門城) 밖에까지 나갔다. 조서(詔書)에는 왕(王)이 요청(要請)한 모든

은 기간 내에 두 번이
나 세조(世祖)를 배알
(拜謁)하였다. 한 번은
전일본도원수(征日本
都元帥)를 배명(拜命)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사의(謝意)를 표하기
위하여 참내(參內)한
것이고, 또한 변은 불

(金方慶)은 귀국(歸國)하게 되었는데, 귀국(歸國)에 즈음하여 세조(世祖)로부터 정동(征東)의 명령(命令)을 받았다. 강남(江南)에서 출발한 아라하(阿刺罕), 범문호(范文虎)의 10만의 제일군(제일군)은

세조(世祖)에 출진(出陣)의 휴가를 청했다. 그 자리에서 세조(世祖)는 제장(諸將)에 타일리 훈계하였다.

「처음 그들 나라의 사자(使者)가 오면서부터 그 때문에 조정도 또 사자(使者)를 보

浦(馬山)에는 이미 두 천 명의 부대가 대기(待機)하고 있었고, 창포(合浦)에 이르기까지 지의 각처의 둔소(屯所)에서 각각 몇백 명씩의 군대가 지방경호(方慶)의 군(軍)에 합류하게 되었다.

지런히 하고 있는 자도 있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몸을 서로 껴안고 쫓기고 쫓아가며 서로 놀고들 있었다. 서로 상의나 한 듯이 안색(顔色)은 푸르고, 손바

은 날은 광장(廣場) 가운데에 놓고 보니 작아 보였다. 일행 조서(詔書)가 들은 형(筒型)의 크기만 철제(鐵製)의 상자(子)를 선두(先頭)에 두고, 그것을 받들어 오는 것 같이 하고

井上靖 著
金崙會 譯

安東金氏 都評議公派 忠孝教室

都評議公派에서는
지난 八月二十一日 慶
北科學教育院에서 第
一回 忠孝教室를 열었
다. 여기 그 教材를 紹
介한다.

松隱先祖 敬심장
머
리말

사람이 세상에 태어
나 三才(天·地·人)의
하나로 참여하여 壽
(수)하고 夭(요)하고
窮(궁)하고 達(달)함
은 운명이라 하지만 선
을 택하고 악을 버리
는 것은 내몸에 달렸는
데 이를 어찌 잠시라
도 소홀히 할까 보나.
대저 사람이 짐승과 다
른 것은 예의가 있기 때
문인데 예의가 없으면
어찌 사람이라 하리오.
요순시대의 아름다운



풍속은 사라져가고 선
비의 옛정은 저속해지
니 어찌 한심치 아니할
까.
故(고)로 내가 敬심
장 열대목을 지어 자신
을 敬제하고 子孫(자
손)들의 敬제를 권하노
라.

一. 어버이 섬기는 일
자식이 부모에게 은
혜를 보답함이 어렵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조식으로 만들고 제 몸
을 조심하여 부모의 근
심을 없게 하며 하루라
도 외박을 하면 부모의
정절로 된다. 나에게
는 편모가 계시는데 七
十이 넘은지라 돌아가
실 날 머지않으니 근
심걱정 뿐이로다. 까마
귀도 反哺(반포)의 孝

(효)를 하는데 사람이
어찌 부모의 정 아니할
까. 어버이 살아 계실
적에 내손으로 정성껏
봉양하리라.

二. 나라에 충성할 일
무릇 백성된 자는 나
라에 충성을 다해야 되
나니 그렇지 못하면 집
승과 같으니라. 比干
(비간)·殷의 주왕시대
의 충신은 목숨을 바
쳐 간하였기에 충신이
되었고, 李斯(이사)·진
시황의 악정을 도운 정
치가. 참형된(는) 나
를 그르쳤기에 죄인이
되었다. 신하로서 나
라에 반역함은 죽어서 마
땅하며, 나라의 엄한
법은 삼족을 멸하고 군
신간의 정한 분수 하
늘의 마면이라 내나라
내임을 단성으로 도
우리라.

三. 제사를 받드는 일
드넓은 이 세상에 봉
제사가 중하니라. 그러
므로 사당을 세워 성
의를 받드나니,三公
(삼공)의 귀한 사람에
게 하나의 서인에 이르
기까지 제례에 따라 만
아들이 행사하니 그 어
떤 사람들이 소홀히 할
것인가. 우리 집가묘도
삼간이 소연하다. 해마
다 신년 명절과 四仲吉
日(사중길일)·한식, 단
오, 추석, 동지)에는
성의를 다하여 제사를
받드리라.

四. 집을 바르게 다스
림

대개 한 집안에서는
남편은 아내의 버리가
되나니 남편이 행하면
부인이 따르는 것은 男

女간에 지켜야 할 예절
이다.

수하와 비복들도 上
下的 체통이 있는데 어
찌 늑음을 평계삼아 집
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
라. 부인네의 과분한
허식은 내심히 유감스
럽고, 여자의 잘못은
가난을 원망하는 데서
연유한다. 예절이 바르
지 못하면 어른이 집을
다스리지 못하니라. 내
몸과 내 집을 바르게 하
여 후손을 敬제하고 자
하노라.

五. 형제 남매 화목할
일

형제 남매는 같은 부
모에서 태어나 자라나
고 배워서 성년이 되면
각기 다른 곳에 결혼
을 한다. 姜公(강공)·
후한 때 효우로 이름 있
는 사람(은) 형제간에
같은 이불을 덮었고 진
전의 집 荊(계)나무는
다시 꽃이 핀다(荊樹
復生兄弟安樂의 眞田
三兄弟故事). 이것은
모두 선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이로다. 지금
사람들은 서로 서로 남
같이 보고 작은 이익으
로 각기 다투나니 기려
기의 질서있는 행렬을
보아도 부끄러운 일이
다. 내부터 우애하기
를 힘써 화락하게 지내
리라.

六. 형제를 삼가할 일

한 번 상하면 불이 지
못하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니 형
제의 판단이 잘못되면
백성은 혼란하다. 무릇
형제를 말은 사람은 포
악하고 각박함을 삼가

할 것이다.

한 번 중용을 잃으
면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종과 하
인과 어린이들이 재 잘
못으로 매를 맞는다 해
도 그도 또한 가엾은데
내 뜻 너그럽게 가져
서 매사를 조심하고 범
람함이 없도록 하리라.

七. 남을 헐뜯지 말일

헐뜯는 것은 남을 헐뜯
것속말로 남을 헐뜯
하면서 좋은 말로 꼬
이듯 하니 그 말이야
꽃같이 달지만 크게는
天下로부터 나라와 가
정에 이르기까지 헐뜯
으로 서로 이간질 하면
만 가지 감정이 생긴
다. 부부간에도 얼굴을
붉혀 의사가 상치되고,
부자간에도 이리같이 무
서워지나니 이처럼 무
서운 헐뜯을 하고도 어
찌 부끄러워 할 줄 모
르는가. 내 뜻 굳게 가
져 헐뜯는 것을 용납
하지 않으리라.

八. 여색을 삼가하는
일

아비눈썹 흰 이빨의
아름다운 여자는 사람
의 마음을 현혹하지만
남자의 정력만 소모하
는 것이다. 밝은 판단
으로 여색을 가까이 하
지 말아야 하는데도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음
란하여서 달콤한 교정
에 사로잡혀 짐승같은
행동이 날로 더해지고
남의 비방을 받게 되니
부끄럽지 아니한가. 내
몸을 조심하고 자손을
훈계하리라.

九. 친구를 잘 사귀는
일

파릇(蓬)이 삼밭에
서 자라면 저절로 곧아
지며, 흰 모래가 진흙
에 섞이면 자연히 검어
진다. 芝蘭(지란)같은

動靜

龍仁郡宗親會定期總會

安東金氏 龍仁郡宗
親會는 지난 二月二十
八日에 第十七回定期
總會를 開催하고 第四
代任員을 다음과 같이
改選하였다.
會長: 在秀(壽鎔)
副會長: 秉卿(按廉
(郡事公派)

좋은 벗은 배신함이 없
고 表裏(표리)가 다른
사람은 사귀지 말 것이
다.
모름지기 훌륭한 벗
은 단정하고 엄숙함이
니 충심으로 서로 도와
갈고 닦아서 평생토록
힘을 일충효에 불과 하
다. 내 스스로 정신을
가다듬어 옛성현을 본
받으리라.

十. 가난하면서도 분
수를 지키는 일

귀하게 되면 화가 따
르고, 부자는 어질지
못함이 많다. 어찌하면
전원에 살면서 天性(천
성)을 지킬까. 顏淵(안
연)·孔子의 首弟子(은
누항에서 즐겨워 했고
陶淵明(도연명)·晉代
의 逸士(은 자연)를 벗
삼아 살았다. 성현들도
이렇게 살았거늘 하물
며 시골 선비야 말하여
무엇하랴. 집이 비록
일여덟칸이라도 몸을
용납할 만하고 말이 수
십마지기이니 먹을 것
은 넉넉하다. 형편에
만족하고 분수를 지켜
서 명리와 욕심에 급급
하지 않으리라.

※ 본 해설은 편집자의 나
름입니다. 정확하다고
볼 수 없으니 양지하시
고 미진하고 공해된 부
분은 원문을 참조하여
해독하시기 바랍니다.

消息

書雲觀正公 諱綏의
七代孫 諱暉는 富川文
化院에서 歷史의 人
物로 收錄되었다.
金暉는 一五三七
年 中宗三十二年 一六一
五年 光海君七年 朝鮮

訃音

書雲觀正公派 初代
會長이며, 大宗會理事
를 歷任한 定浩宗親會
서 지난 八月八日 持
病人 心不全症으로 自
宅에서 別世하였다. 享
年六十八歲이며, 現宇
星商會會長으로 在職
中이었다.
葬地는 京畿道 義旺
市 禮義洞 先塋下이다.

宣祖 때의 文臣으로 字
는 子昂, 號는 夢村으
로, 宣祖六年 一五七
三年, 文科에 及第하여
輔國判中樞府使에 이
르렀다. 宣祖朝에 選清
白吏에 錄選되시고 一
六一五年(光海君七年)
乙卯八月十七日에 卒
하니 享年六十九歲였
으며, 諡號는 昭懿公이
다. 墓所는 京畿道 富
川市 高강 본동에 位置
하고 있으며, 著書에는
夢村集이 있다.

族譜·回顧錄·自敘傳·等
文集·詩集·論文集 상
모든 出版物에 關하여
답을 기다립니다.

春岡文化社

서울·중구 충무로5가 36-3
(동산빌딩 501호)
電話: 272-4553
266-5093
FAX: 273-4378
〈族譜·漢文書籍 專門〉

한전원예

代表 金在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TEL: 783-1316 783-1316 783-1316
FAX: 780-1847 780-1847 780-1847
자택: 552-1532 552-1532 552-1532